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동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하셨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



민은혜 예금주: 김강진(현대불교) 원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동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동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능협)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조상금 50,000 윤선에 10,000 조근영 1,000
이창근 10,000 남광 20,000 박상환 50,000
지명숙 60,000 오승희 10,000
총 누적금액 41,955,050원

자원봉사, 교육 먼저 받으세요

조계종·천태종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교계 자원봉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원봉사자들은 가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생각해본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봉사 대상자들을 편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복지시설이나 대상자들에게 환영받는 봉사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8월 23일 성남 봉곡사와 24일 구미 금오복지관에서 사찰 봉사단체 교육 실시했다. 사찰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봉사자로서의 기본 소양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자원봉사 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시설과 좋은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또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현재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을 통해 ‘전문성’ 있는 봉사자들을 기르고 있다. 600여명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배출한 천태종은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으로 봉사자들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돌보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친다. 봉사자들의 ‘좋은 마음’만으로는 좋은 봉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단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봉사 대상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신도 보람을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0여 년간 봉사자들이 교육받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수동기 계장은 ‘봉사자들 자신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강진 기자

비교 유형	환영받는 자원봉사자	환영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약속을 잘 지킨다	정신적충만	정신적충만
말을 가려서 한다	자기주장만 너무 강하다	자기주장만 너무 강하다
전문성이 있다	쉬운 일만 골라 한다	쉬운 일만 골라 한다
잘 웃고 따뜻하게 말한다	지랄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열중한다	지랄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열중한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다	봉사를 사정해 개인 영리를 추구한다	봉사를 사정해 개인 영리를 추구한다
도덕적이다	다른 봉사자나 기관 실무자의 흉을 본다	다른 봉사자나 기관 실무자의 흉을 본다

자원봉사자를 배정해주는 불교계 단체		
자원봉사 문의처	지역	전화번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라이온스 빌딩	(02)723-0131
천태종 사회복지재단(호스피스교육)	서울 강남구 관문사	(02)575-3467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053)473-1199
자비신행회	광주광역시 동구(구)원초동학교	(062)234-2732
정도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정도회관	(02)587-8990
천수천안자원봉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남빌딩	(031)969-0108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81-9	(053)474-9748
대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평송청소년수련원	(042)488-0733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자세

△경청이라는 잘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부터 대상자들의 생활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금물이다. 대화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들의 말이 느리더라도 말 중간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는 봉사자와 동등한 입장이다= 대상자들은 봉사를 ‘받아주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의의 봉사도 전혀 고맙지 않다. 대상자들도 봉사자들에게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불쌍하다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실례. 같은 입장에서 모자란 것을 채워줄 뿐이다.

△자신의 주장은 안 함도 천천히=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갈등 요소는 늘 존재한다. 갈등은 봉사자끼리, 봉사자와 기관 사이에서 일어난다. 또 이에 따른 세대 차, 건강 상태 등도 갈등 요소가 된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장이 너무 강한 봉사자들이 있어서다. 봉사활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봉사는 ‘이름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다.

△봉사는 꾸준히 할 각오로= 1회성 봉사는 대상자들에게 상처만 남긴다. 설부터 봉사활동에 뛰어들 것이라 교육을 통해 충분히 봉사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맞는 봉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건강에 맞지 않게 수행하는 무리한 봉사도 금물이다. 봉사자 교육을 통해 ‘봉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들이 먼저 알아보고 양말 벗어요” 안양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만 5년째 봉사하고 있는 공덕회는 8월 23일에도 아이들의 발을 정성스레 마사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공덕회

아이들이 반길 때 가장 신나요

8월 24일 경기도 안양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용) 주간보호센터. 복지관의 장애아동들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공덕회팀장 이성이가 들어서자 양말을 벗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복지관 직원과 공덕회 회원들 모두 웃음바다다.

공덕회 회원들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양말을 벗는 까닭은 공덕회의 마사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발을 문지르고 지압봉으로 푹푹 누르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표정이 역력하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 보니 거동이 불편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일이 없죠. 근육도 약하고 순환기 장애도 많아요.”

다리를 살살 문지르는 중간중간 아이들의 발이 공덕회 봉사자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지만 이내 다시 발을 내민다. 아이들은 봉사자들에게 그저 발을 내밀고 바닥의 장판 문지르듯 신경을 쓰고 있다. 봉사자들은 완연히 믿고 있는 눈치다.

“웬걸요, 처음엔 애들이 아프다고 곁에도 안 오려 했어요. 그런데 좀 익

숙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가까이 오더라고요.”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만 5년째 장애아동들이 마사지를 잘 못 알아본다고들 하지만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인지 공덕회를 대하는 아동들의 태도는 남다르다. 오히려 매일 시간을 함께하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다리를 만지면 내뿜는 정교도, 아이들이 자신들을 믿어줄 때까지 봉사의 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창기 손두봉(70)·최재희(54)·황순봉(54)·박계순(53) 이렇게 4명의 봉사자로 시작해 이제 14명의 대식구가 된 공덕회는 안양지역 불자들의 자제 모임이다. 초기 봉사 멤버들은 식당봉사만 10년 정도 했을 정도로 봉사는 삶의 일부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그런 자신의 삶이 보람 있고 즐거웠기에 각자의 친구들에게 ‘봉사활동’을 적극 추천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다리를 꼭 주물러주세요. 자기들이 받은 것 그대로. 그 말을 들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뻐더라고요.”

글·사진/안양=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도에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 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해서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별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골아동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후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별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수맥과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와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오마니 밤매홀 건강벨트

축복의 벨트!
성공의 벨트!
지혜의 벨트!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된다는 오마니 밤매홀 건강벨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3분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벨트다. 또한 일반벨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벨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멜토에너지를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벨트로 만사 행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능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 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 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뒷발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수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능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과 감정 개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수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도산(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탈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능협053-12-102911